

##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박영자 · 이승교

농촌생활연구소 ·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Culture Consciousness of Rural and Urban Housewives

Park, Young Ja · Lhie, Seung Gyo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 Dept. of Food and Nutrition, the Univ. of Suw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etary culture consciousness of rural and urban housewives through a nationwide survey. Interviewers interviewed 500 housewives(250 in rural and 250 in urban) using closed-ended questions. The dietary culture consciousness was divided into two parts of traditional aspect(dietary habit and ritual diet) and desirable aspect(food choice and nutrition knowledge). Each domain consisted of six items.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s a whole, dietary culture consciousness of rural housewives was more traditional than that of urban housewives in traditional aspec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of consciousness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wives in desirable aspect.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1% level between two groups in traditional aspec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sirable aspect.

3) By the analysis of each item,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14 items. Especially, the item of westernized breakfast pattern was more acceptable in urban housewives than in rural.

4) In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and dietary consciousness of them, age, educational level and religion of housewife were significant in traditional aspect, and so were educational level and job experience of housewives in desirable aspect. Dietary consciousness of rural housewives' was influenced by job experience(in traditional aspect) and age of housewives and level of living(in desirable aspect). In the case of urban housewives, level of living was significant in traditional aspect.

**Key words** : Dietary Culture Consciousness, Traditional aspect, Desirable aspect

### I . 서 론

식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인 의식주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모든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동력은 인간 행동의 모

두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간 개개인의 식생활양식은 한 사회의 긴 역사적 조류 속에서 환경의 영향과 적응을 거쳐 민족 특유의 식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 유통산업의 발달, 교통 통신여건의 향상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문화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식문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득향상과 식품생산체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은 물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식생활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분별한 서구화 추세를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의 자율화로 식품의 생산체제는 물론 식품의 소비구조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사회, 경제, 농업, 보건 등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식문화 및 식문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식문화의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에 관련된 실태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들(김정현, 1990: 유희정, 1989: 장유경 등, 1988: 김화영, 1984: 임국이, 1984: 정혜경 등, 1982: 모수미, 1980: Mazur and Sanders, 1988: McNeill 등, 1988)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영양지식, 가치관, 거주지역, 정신건강상태, 신체적 건강, 연령, 종교, 전통적인 관습, 문화적 혜택, 부모의 직업, 교육정도, 수입정도 등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 등 전반적인 요인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지역의 자연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사회의식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무엇보다 지역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

라는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교통 통신과 대중매체의 발달 및 인구의 급격한 이동 등으로 인해 도농간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식문화에 대한 의식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 양상이 어떠한지의 문제는 실제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의 식문화 형성에는 무엇보다 그 개인이 성장한 가정의 식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 가정의 식문화는 식생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므로 주부들의 식문화의식을 파악하여 현재의 식생활 실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식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식문화를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가정내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며, 특히 농촌과 도시의 주부들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방법과 절차

식문화는 인간의 식생활을 형성하는 양식과 내용으로서 시대와 지역, 민족 등에 따라 그 양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척도와 변수를 이용하여 식문화의식을 측정하고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식문화의식은 전문가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전통적인 측면(식습관영역과 의례식영역의 각각 6문항)과 바람직한 측면(식품선택영역과 영양지식영역의 각각 6문항)에서 각각 12문항씩을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sup>1)</sup> 한편, 주부의 식문화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1) 24개 문항 모두 Likert-type의 총화평정척도(Summated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전혀 아니다(적극 반대)”, “아니다(약간 반대)”, “보통(중간)”, “그렇다(약간 찬성)”, “정말 그렇다(적극 찬성)”의 5단계별로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변수로는 주부의 연령, 학력, 취업경험, 종교, 생활수준 등 5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목적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지역의 추출을 위해 농촌지역은 군단위 인구수에 따라, 시지역의 동선정은 도시별로 계통추출을 하였는데, 각 표본지역별로 주민등록부를 이용해 10가구씩 계통추출을 수행한 결과 도시지역(250가구)과 농촌지역(250가구)에서 총 500가구의 주부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994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각 가

구의 주부를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원은 해당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였다.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적용된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chi^2$  검정, t-test와 일원분산분석 등이었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와 주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

구 분	농 촌		도 시		계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연령	21 ~ 29	17	6.8	15	6.0	32	6.4
	30 ~ 39	72	28.8	95	38.0	167	33.4
	40 ~ 49	55	22.0	81	32.4	136	27.2
	50 ~ 59	67	26.8	49	19.6	116	23.2
	60 이상	39	15.6	10	4.0	49	9.8
학력	무 학	38	15.2	11	4.4	49	9.8
	국 졸	96	38.4	61	24.4	157	31.4
	중 졸	61	24.4	70	28.0	131	26.2
	고졸 이상	55	22.0	108	43.2	163	32.6
취업 경험	현재	19	7.6	20	8.0	39	7.8
	과거	88	35.2	143	57.2	231	46.2
	없음	143	57.2	87	34.8	230	46.0
종교	불 교	112	44.8	100	40.0	212	42.4
	기 독 교	35	14.0	41	16.4	76	15.2
	천 주 교	10	4.0	24	9.6	34	6.8
	없음	93	37.2	85	34.0	178	35.6
생활 수준	아주 잘사는편	3	1.2	3	1.2	6	1.2
	잘사는편	36	14.4	38	15.2	74	14.8
	그저그렇다	184	73.6	182	72.8	366	73.2
	못사는편	26	10.4	24	9.6	50	10.0
	아주 못사는편	1	0.4	3	1.2	4	0.8
가족 수	1 - 3명	105	42.0	63	25.2	168	33.6
	4 - 5	110	44.0	145	58.0	255	51.0
	6 - 9	35	14.0	42	16.8	77	15.4
남편 직업	전문기술직	14	5.6	39	15.6	53	10.6
	행정사무관리직	23	9.2	55	22.0	78	15.6
	판매직+서비스직	14	5.6	48	19.2	62	12.4
	생산 및 관련종사	186	74.4	89	35.6	275	55.0
	기타 + 없음	13	5.2	19	7.6	32	6.4
계	250	100	250	100	500	100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 50대로 비교적 젊은 주부들이 많았으며, 도시지역의 주부들이 좀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농촌에서는 국졸이, 도시에서는 고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경험을 보면 현재 취업중이거나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54.0%로 약간 더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주부들의 취업경험이 더욱 많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64.4%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 불교가 42.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불교인구 비율이 많았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자가 진단에 의한 생활수준을 보았는데 ‘그저 그렇다’가 농촌 및 도시 모두 73.2%로 가장 높았고, ‘아주 잘 사는 편’과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6.0%, ‘못산다’고 답한 사람이 10.8%였다. 이 결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다.

## 2.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 영역별 비교 분석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을 보다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 항목의 의식을 4개 영역별로 종합한 총화평정척도(Summated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총화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식문화의식에 대한 농촌과 도시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영역별 의식 점수의 비교 외에도 두 영역씩을 합한 두 측면의 합계 점수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의 비교분석 결과도 아울러 제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측면의 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의식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현대적인 의식이 강한데 식습관영역과 의례식영역 모두에서 농촌주부(각각 3.48, 3.54점)가 도시주부(각각 3.26, 3.34점)보다 전통적인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전체로도 농촌주부가 3.51점, 도시주부가 3.30점으로 농촌주부

가 도시주부보다 전통적인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바람직한 식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농촌과 도시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식품선택영역은 도시주부가 농촌주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p < 0.05$ ), 영양지식영역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항목별로 볼 때 식습관영역, 의례식영역 및 식품선택영역은 4항목이, 영양지식영역은 2항목이 농촌과 도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식문화의식과 개인 및 가구특성간의 관계 분석

식문화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의 <표 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가. 연령과 식문화의식과의 관계

전통적 측면의 식문화의식은 농촌과 도시 모두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 의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식습관영역보다는 의례식영역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식습관영역에서는 “아침식사형태”, “가장 중심의 식사준비” 등의 항목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 “1일 3식”과 “보신탕 먹기” 등의 항목은 농촌주부집단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손님 커피 접대”는 다른 항목과는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하였는데, 도시주부만이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한상차림” 항목은 농촌과 도시 모두 가장 낮은 전통의식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표 2> 총화평정점수에 의한 전통적인 측면의 식문화의식 비교

구		분	M	±	S.E	t 값
식 습 관 영 역	아침식사형태	농 촌	3.97	±	0.063	-4.58**
		도 시	3.57	±	0.061	
	1일 3식	농 촌	4.08	±	0.054	-2.23*
		도 시	3.91	±	0.053	
	보신탕 먹기	농 촌	3.18	±	0.066	-4.71**
		도 시	2.74	±	0.066	
	손님 커피 접대	농 촌	3.50	±	0.062	-1.09
		도 시	3.41	±	0.063	
	시아버지와 며느리 한 상차림	농 촌	2.49	±	0.056	0.05
		도 시	2.49	±	0.058	
	가장중심의 식사준비	농 촌	3.64	±	0.051	-2.77**
		도 시	3.42	±	0.061	
	소 계	농 촌	3.48	±	0.026	-6.18**
		도 시	3.26	±	0.025	
의 례 식 영 역	폐백음식의 대추와 밤	농 촌	3.84	±	0.059	-2.24*
		도 시	3.66	±	0.055	
	돌상의 전통식 차림	농 촌	3.62	±	0.065	-0.73
		도 시	3.56	±	0.059	
	생일날의 국수 음식	농 촌	2.90	±	0.066	-2.71**
		도 시	2.66	±	0.063	
	명절의 전통음식 준비	농 촌	3.76	±	0.057	0.45
		도 시	3.80	±	0.056	
	회갑상 차림	농 촌	3.27	±	0.062	-4.18**
		도 시	2.90	±	0.063	
	설날의 떡국먹기	농 촌	3.82	±	0.057	-3.74**
		도 시	3.48	±	0.068	
	소 계	농 촌	3.54	±	0.041	-3.59**
		도 시	3.34	±	0.035	
전 체 계	농 촌	3.51	±	0.027	-5.69**	
	도 시	3.30	±	0.024		

\* : p < .05, \*\* : p < .01

〈표 3〉 총화평정점수에 의한 바람직한 측면의 식문화의식 비교

(단위 : 점수)

농 촌		M	±	S.E	t 값
식품 선 택 영 역	외국농산물 구입	농 촌	3.88	± 0.068	-2.06*
		도 시	3.68	± 0.064	
	임신시 식품금지	농 촌	2.46	± 0.062	3.88**
		도 시	2.83	± 0.071	
	가공식품 이용	농 촌	3.83	± 0.045	2.05*
		도 시	3.96	± 0.046	
	건강보조식품 이용	농 촌	3.54	± 0.055	2.88**
		도 시	3.76	± 0.051	
	식품구입시 신선도 고려	농 촌	3.94	± 0.045	0.63
		도 시	3.98	± 0.045	
	자극성조미료 이용	농 촌	2.81	± 0.060	0.24
		도 시	2.83	± 0.060	
	소 계	농 촌	3.41	± 0.025	2.55*
		도 시	3.51	± 0.028	
영 양 지 식 영 역	어른의 편식	농 촌	4.05	± 0.043	-2.03*
		도 시	3.91	± 0.051	
	영양에 관한 TV시청	농 촌	3.67	± 0.048	-0.69
		도 시	3.62	± 0.050	
	제사음식에 대한 선입견	농 촌	3.43	± 0.067	-0.92
		도 시	3.34	± 0.068	
	식사의 질과 양	농 촌	2.96	± 0.060	2.84**
		도 시	3.20	± 0.063	
	음식의 영양과 맛	농 촌	3.30	± 0.054	-0.55
		도 시	3.26	± 0.059	
	반찬의 가지수	농 촌	2.65	± 0.057	-1.51
		도 시	2.53	± 0.055	
	소 계	농 촌	3.34	± 0.023	-0.97
		도 시	3.31	± 0.023	
전 체 계	농 촌	3.38	± 0.017	1.31	
	도 시	3.41	± 0.018		

\* : p < .05 , \*\* : p < .01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표 4> 식문화의식과 개인 및 가구특성간의 관계분석 결과

구 분			연 령	학 령	취업경험	종 교	생활수준
			農 都	農 都	農 都	農 都	農 都
전 통 영 역  적  인 측 면	식 습 관 영 역	아침식사 형태	** **	** **	** **	* ns	ns ns
		1일 3식	** ns	** **	** ns	ns **	ns ns
		보신탕 먹기	** ns	* *	** ns	ns ns	ns ns
		손님커피 접대	ns *	* *	ns ns	ns **	ns ns
		시아버지와 며느리 한상차림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가장중심의 식사준비	** *	** ns	* *	ns *	ns ns
	소 계		* **	** **	** ns	ns ns	ns ns
	의 례 식 영 역	폐백음식의 대추와 밤	** *	** ns	** ns	ns *	ns ns
		돌상은 전통식차림	** ns	* ns	* **	ns ns	ns ns
		생일날의 국수음식	** ns	ns ns	ns ns	* ns	ns ns
명절의 전통음식 준비		** ns	** ns	ns ns	** ns	ns ns	
회갑상 차림		** *	** ns	** ns	ns ns	ns ns	
설날의 떡국		** ns	* ns	* ns	ns ns	ns ns	
소 계		** *	** ns	** ns	* **	ns ns	
합 계			** **	** **	** ns	* *	ns *
바 람 영 역  직  한 측 면	식 품 선 택 영 역	외국농산물 구입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임신시 금기식품	** *	** ns	** ns	ns ns	ns ns
		가공식품 사용	ns ns	ns ns	* ns	ns ns	ns ns
		건강보조식품 이용	ns ns	ns ns	ns ns	* ns	ns ns
		식품구입시 신선도고려	** ns	* ns	** ns	ns ns	** ns
		자극성 조미료 이용	* ns	** ns	* ns	* ns	ns ns
	소 계		** ns	** *	** ns	ns ns	ns ns
	영 양 지 식 영 역	어른의 편식	ns ns	** ns	ns ns	ns ns	* *
		영양에 관한 TV 시청	ns *	** *	* ns	ns ns	** ns
		제사음식에 대한 선입견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식사의 질과 양		** **	** **	** **	ns ns	ns ns	
음식의 영양과 맛		** ns	** **	* ns	ns ns	ns ns	
반찬의 가지수		** ns	* ns	* ns	ns ns	ns ns	
소 계		ns ns	ns ns	ns ns	ns ns	** ns	
합 계			** ns	** **	** *	ns ns	** ns

\* : p < . 05, \*\* : p < . 01

의례식영역에서는 “폐백음식의 대추와 밤”과 “회갑상 차림” 항목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주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돌상의 전통식 차림”, “생일날의 국수음식”, “명절의 전통음식준비”, “설날의 떡국먹기” 항목은 농촌주부 집단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바람직한 측면의 식문화의식은 농촌 주부에서만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식문화의식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식품선택영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선택영역에서는 임신시 식품금지 항목이 농촌과 도시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도시의 경우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밖에 “식품구입시 신선도 고려”, “자극성 조미료 이용” 항목에서는 농촌주부만이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영양지식영역에서는 “식사의 질과 양” 항목이 농촌과 도시 모두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음식의 영양과 맛”, “반찬의 가지수”는 농촌주부만이 연령이 높을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영양에 관한 TV 시청”은 도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60세 이전까지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0세 이후는 오히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노년층의 생산활동시간 감소로 인한 TV 시청시간 증가가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 나. 학력과 식문화의식과의 관계

학력과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식문화의식과의 관계는 농촌과 도시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p < 0.01$ ). 영역별로 보면 식습관영역과 의례식영역 모두에서 농촌지역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도시지역에서는 식습관 영역에서만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식습관 영역에서는 두 지역 모두 관계가 없는 항목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한상 차림”뿐이었다.

“아침식사형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빵이나 우유 등 양식을 선호하였고, “1일 3식”과 “여름철에 보신탕 먹기”는 학력이 낮을수록 선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손님에 대한 커피 접대”가 다른 항목과 달리 학력이 낮을수록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커피문화가 이미 일반화된 반면, 고학력층에서는 오히려 우리차에 대한 의식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양식을 선호하는 결과는 김성미 등(1986), 장현숙(1988), 정순자 등(1985)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의례식영역에서는 도시주부 집단의 경우 관계가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었으나 농촌주부 집단의 경우는 “생일날 국수음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관련이 있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의식이 높았다.

바람직한 측면의 의식수준은 농촌과 도시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는데, 식품선택영역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우에서만 “임신시 식품금지” 항목 등 3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내용을 보면 “임신시 식품금지” 의식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강하였고 식품구입시에 값보다 신선도를 고려하는 정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자극성 조미료의 이용”은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았는데 이 결과는 오혜숙 등(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였다.

영양지식영역에 있어서는 농촌주부의 집단에서 “제사음식에 대한 선입견” 항목을 제외한 5항목에서 학력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데 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영양에 관한 TV 시청”과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영양과 맛” 등 3항목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취업경험과 식문화의식과의 관계

전통적 측면의 식문화 의식은 농촌지역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서 취업경험이 없는 주부가 전통적인 의식수준이 높았다( $P < 0.01$ ). 식습관 영역을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6항목 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한상 차림” 항목과 “손님 접대시 커피이용”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아침 식사 형태”, “가장 중심



의 식사준비"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관계의 내용을 보면 관계가 있는 모든 항목에서 취업경험이 없는 주부가 취업경험이 있는 주부보다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김성미 등(1986)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의례식영역을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생일날의 국수음식"항목과 "명절의 전통음식 준비"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관계가 있는데 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돌상은 전통식차림"항목에서만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과 도시주부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역에서 관계가 있는 항목은 "돌상은 전통식 차림"뿐이었다.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취업경험이 있는 주부들의 의식수준이 높았는데, 각 영역별로 볼 때는 식품선택영역에서 농촌 주부들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품선택영역 중에서는 "임신시 식품금지"와 "식품구입시 신선도 고려", "가공식품 사용", "자극성 조미료 이용"항목이 농촌지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영양지식영역의 전체 점수는 농촌 도시지역 모두에서 관계가 없었으나, 농촌의 경우 "영양에 관한 TV 시청",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영양과 맛", "반찬의 가지수" 등 4항목에서, 도시지역은 "식사의 질과 양"항목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취업이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로는 Eppright(1970), Chass and van Veen(1967)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로는 유희정(1989), 장유경 등(1988), 이희숙 등(1985)의 연구가 있다.

#### 라. 종교와 식문화의식과의 관계

전통적인 측면의 식문화의식은 농촌과 도시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불교집단의 전통적 의식점수가 가장 높았다. 식습관영역의 총점은 두 지역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항목별로 볼 때 농촌지역은 "아침식사 형태"만이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데 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1일 3식", "손님접대시 커피이용", "가장

중심의 식사준비"등 3항목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타항목과는 달리 커피는 기독교나 천주교 집단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례식영역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유의한 의식차를 보였는데, 불교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명절의 전통음식" 항목에서만 관계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폐백음식의 대추와 밤"항목과 "생일날의 국수음식"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바람직한 측면의 식문화의식 및 두 하위 영역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건강보조식품 이용"과 "자극성 조미료 이용"항목만이 농촌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종교와 식문화의식간에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생활수준과 식문화의식과의 관계

전통적인 측면의 의식수준은 도시의 경우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개의 하위영역은 물론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통적 측면의 식문화의식에 대한 생활수준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전체 점수와 영양지식영역에서 농촌지역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항목별로 볼 때 "신선도 고려", "어른의 편식", "영양에 관한 TV 시청" 등 3항목만이 농촌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의 경우는 "어른의 편식"항목만이 의미있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식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식문화를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가정내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농촌과 도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측면(식습관영역과

의례식영역)과 바람직한 측면(식품선택영역과 영양지식영역)에서 각각 식생활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조사의 통계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때 농촌주부들이 '전통적인 측면'의 의식이 도시주부들보다 강했으나,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두 지역 주부들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을 영역별로 보면 의례식영역과 식습관영역에서는 1%수준에서, 식품선택영역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영양지식영역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을 항목별로 보면 전체 24항목 중 14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4.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의식을 나타냈으나(1%수준), 연령에 따른 바람직한 측면의 의식은 농촌지역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5.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의식은 강했고 바람직한 의식은 낮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농촌주부들이 도시주부들보다 식문화의식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농촌주부들은 영양지식영역을 제외한 식문화의식의 전영역에서 취업경험이 식문화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하여 도시주부들은 전영역에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7. 종교와 식문화의식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성의 정도가 낮았으나, 의례식영역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련이 있었다. 종교별로는 불교집단이 전통적인 의식이 제일 높았고, 기독교와 천주교집단이 제일 낮았다.

8. 생활수준과 식문화의식과의 관계는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농촌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개별 항목별로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거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농촌과 도시주부들 간에는 식문화의식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측면의 의식차이가 크며, 농촌주부들이 도시주부들에 비해 개인 및 가구특성의 영향을 좀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식문화 정립을 위한 식문화의식 관련연구는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항목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와 식문화의식의 바람직한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성미 · 하영득 · 허필숙(1986), 도시 및 농촌 거주 주부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과학논집 14집; 51-67
- 김정현(1990),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영(1984),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178-184
- 모수미(1980), 지역사회 영양학
- 유희정(1989), 서울시내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 및 식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 · 장유경(1985),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2); 90-97
- 임국이(1984), 중도시 주부들의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2(1); 117-128
- 장유경 · 오은주 · 선영실(1988),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43-51
- 장현숙(1988), 도시 및 농촌 거주 주부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농촌과 도시주부의 식문화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 15-30
- 정순자·김화영(1985),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4); 102-108.
- 정혜경·김숙희(1982), 한국의 도시 빈곤지역과 농촌의 영양 섭취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5(4); 290-300
- Chass and van Veen(1967), The application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to the study of food habits and food consumption in an industrializing area", Am. Clin Nutr. 20(1); 56
- Eppright, E.S., etc.(1970), "Nutrition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mothers", J. Am. Home Ec. Assoc. 62; 327-331
- Mazur and Sanders(1988),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Health and Nutrition in Peri-Vrban Zimbabwe", Ecol. Food Nutr. 12;19
- McNeill, G., Rayne, D.R. and Rivers, J.P.W., (1988), "Socio-economic and Seasonal Patterns of Adult Energy Nutrition in a South Indian Village", Ecol. Food Nutr. 22; 85